

감염경로 오리무중 나올라...일본 “폐렴환자 전수조사”

중앙방역대책본부 “모든 폐렴환자 대상 아냐”

일본처럼 역학 연관성 없는 환자 나올까 대응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예방책으로 폐렴환자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모든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세부적인 방안은 관련 의학회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폐렴 전수조사는 호흡기학이나 감염학 회와 세부범위, 시행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좀 더 많은 선별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특히 폐렴환자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 부분도 아마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되고 브리핑 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폐렴 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냐”라며 “(전수조사) 범위와 시기, 구체적인 계획은 중수본과 협의해 나중에 브리핑을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이 폐렴환자 전수조사에 나선 이유는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환자가 폐렴환자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오리무중’ 감염자가 2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일본은 크게는 2개의 집단 발병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나는 택시기사 관련 모임, 또 다른 하나는 신년 모임에서 노출된 사례가 있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환자가 격리된 16일 서울 중로구 서울대병원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다. 한편 당국과 의료진이 국내 확진환자 28명의 임상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입원 후 실시한 영상검사서 폐렴 증세를 보인 환자가 전체 64.3%(18명)이었다.

“코로나19 평균 잠복기 4.1일...무증상 전파 없다”

코로나19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월 16일 09시 기준)

구분	총계	확진환자			검사현황		
		소계	격리중	격리해제	소계	격리중	격리해제
2.15(토) 16시 기준	7734	28	19	9	7706	558	7148
2.16(일) 09시 기준	7919	29	20*	9	7890	577	7313
증감	+185	+1	+1	0	+184	+19	+165

* 29번째 환자(38년생, 남자, 내국인, 해외 여행력 없다고 진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원하여 검사 실시 양성 확인, 국가직접입원치료병상(서울대학교 병원) 격리

정은경 중대본부장 정례브리핑
확진자 28명 중 중유입 12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는 4.1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무증상 상태의 2차 전파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6일 오후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 본부장은 지난 15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28명의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15일까지 발생한 28명 확진자 중 국내 감염 사례 10명은 가족·지인과의 밀접 접촉으로 인해 발생했다.

정 본부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추정



한 평균 잠복기는 4.1일이었다”며 “무증상 상태에서의 2차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6일 추가 확진자로 발표된 29번째 환자는 현재 감염경로가 조사중이라 분석에서 제외됐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15일까지 발생한 28명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57.1%, 이 중 중국이 12명), 국내 감염 사례는 10명(35.7%)이었다. 2명(7.1%)은 전파 경로를 조사 중이다.

확진자 28명 중 남성은 15명(53.6%),

여성은 13명(46.4%)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명(28.6%)으로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는 한국 국적 22명(78.6%), 중국 국적 6명(21.4%)이었다.

최초 임상 증상은 발열(열감), 인후통(목통증) 호소가 각각 9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경미하거나 평범한 감기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입원 후 실시한 영상검사상에서는 폐렴을 보인 환자가 18명(64.3%)이었다.

뉴스1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